

식용유를 자동차 연료로 개발

일본, 연비·출력은 기존수준 ... 배기가스 배출 1/4 이하로

일본 정부가 식용유를 연료로 하는 이른바 <바이오디젤 연료 자동차>를 2006년 3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다. 도쿄신문은 6월29일 국토교통성 발표를 인용해 2004년 1억3500만엔의 예산을 들여 엔진을 설계하고 2005년 중 중형 트럭에 탑재해 주행시험을 거칠 것이라고 보도했다.

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질소산화물 등 배기가스 배출이 1/4 이하로 줄어들지만 연비와 출력은 기존 디젤 트럭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일본 정부가 식용유 차량 개발에 나선 것은 이른바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.

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일부국가가 식용유를 경유에 섞어 사용하고 있으나 100% 식용유 연료를 사용한 사례는 없으며,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도 전무하다.

<화학저널 2004/06/30>